

1

배뱅이, 탄생이오

옛날 옛적, 서울 장안에 사는 최정승 부인이 머리 달비 한 쌍을 치마폭으로 받아 배배배배 틀어넣었다는 꿈을 꾸고 아주 귀한 딸을 얻었어요. 달비를 배배배배 꼬아 틀었다고 해서 딸아이 이름을 '배뱅이'로 지었습니다.

달비: 예전에 여자들이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덧널렸던 띠머리.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길게 땋아 꼭지를 맺어 만드는데, 지방에 따라 혼수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표준어는 '다리'이며, '달비'는 함경도와 충청도, 경상도 방언이다.

2

배뱅이, 사랑의 향아리에 풍당 빠졌소

배뱅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어느덧 혼기가 찬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승, 문안 들었소이다!" 젊은 스님이 배뱅이의 집에 동냥을 왔어요. '어머나, 참으로 선남이로구나!' 배뱅이는 속으로 감탄하며 젊은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배뱅이와 눈이 마주친 스님도 같은 마음이었지요. '정말로 어여쁜 아가씨가 아닌가.' 배뱅이에게 푹 빠진 스님은 그날로 상사병에 걸렸어요. 시름 시름 앓는 젊은 스님이 안쓰러웠던 다른 스님들은 그를 향아리에 숨겨 배뱅이 방에 들여놓았어요. 방에 들어온 배뱅이는 향아리에 스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잣말을 했어요. "스님, 보고 싶어요." 그때, 향아리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스님이 말했어요. "아가씨, 제가 보고 싶거든 독을 열어보세요." 깜짝 놀란 배뱅이가 향아리 뚜껑을 열었더니... "어머, 스님!" "배뱅이 아가씨,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일싸 안았습니다.

3

배뱅이, 이별하오

배뱅이와 스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배뱅이 방에서 숨어 지낼 수만은 없었지요. 고심 끝에 스님이 배뱅이에게 말했어요. "황해도에 가서 집을 마련해놓고, 내년 이삼월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네, 스님. 기다릴게요." 그런데 이 년이 지나고 삼 년이 지나도 스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배뱅이는 오매불망 스님만 기다리다 지쳐 몸도 마음도 점점 쇠약해졌지요. 그러다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답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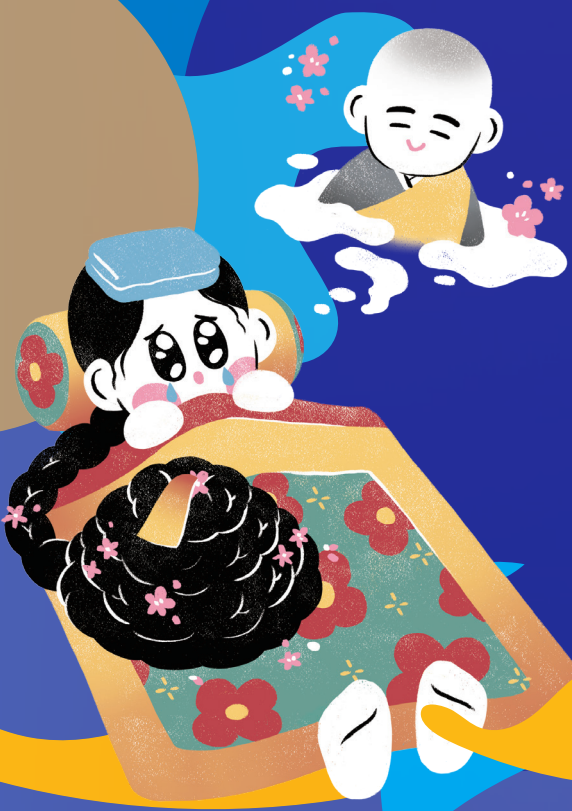
가짜 박수무당 등장이오, 배뱅이 굿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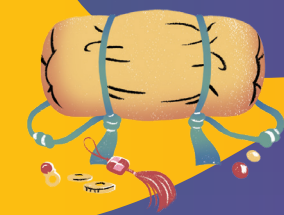
말을 먼저 보낸 최정승 부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선 팔도의 무당을 죄다 불러들여 배뱅이 혼을 부르는 자에게 전 재산을 주기로 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굿을 해도 배뱅이의 혼은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일푼 평양 건달이 배뱅이네 집에서 굿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오호라! 배뱅이만 부르면 전 재산을 준다 이거지?' 건달은 한 뭉치 단단히 챙길 요량으로, 박수무당 옷을 빌려 입고는 무당 행세를 하며 가짜 굿을 했어요. "오마니, 아버지! 배뱅이 왔어요!" 건달은 갖은 피를 부려 배뱅이 흥내를 냈어요. 그 연기가 어찌나 교묘하던지, 깜빡 속아 넘어간 최정승 부부는 진짜로 배뱅이가 온 줄 알고 울고불고 난리법석이었지요. "아이고,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마니, 아버지. 이제 서러워 마시고 잘 사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짜 배뱅이의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답니다.

5

고늬, 한가득 쟁겨 퇴장이오

한편, 최정승에게서 전 재산 얻어낸 평양 건달은 '이런 굿 세 번이면 천하제일 부자가 되겠구나!'라며 유유히 길을 떠났답니다.





배뱅이굿

배뱅이굿은 서도소리에 속하는 작품 중 하나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한 사람의 소리꾼이 대사와 소리를 통해 배뱅이의 이야기를 해학적인 서사로 풀어가는 것이 특징이며, 서도소리 중에서 유일하게 극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소리꾼 '김유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배뱅이굿과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2호 향두계놀이를 이수 받았으며, 현재 향두계놀이 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서도소리를 알리고 있다.

서도소리

평안도와 황해도를 중심(서도지역)으로 민간에서 주로 부르던 노래를 일컫는다. 예로부터 대륙과 인접한 거친 풍토에서 북방 이민족과 함께 겨우며 굳세게 살아온 서도 지방민들의 생활 속에서 민면이 이어져 내려온 소리로, 노랫가락에도 그들의 생활과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서도소리에는 평안도, 황해도 지역의 민요, 서도좌장, 시장, 배뱅이굿 등이 있는데,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로 등재되어 있으며 전승 취약 종목으로 선정되었다.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남산국악당은 2007년 전통공연예술의 진흥과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국악 전문 공연장으로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테마공간을 대표하는 명소로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청년국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청년국악인들의 거점공간과 새로운 국악공연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설화탐정

설화탐정AR 시리즈는 강원도 영월을 시작으로 제주, 단양, 충주까지 전국의 사라져가는 수많은 구전설화와 지명설화를 증강현실 동화로 재탄생 시키고 있다. 이름도둑과 설화탐정의 꽃고 쫓기는 모험을 통해 한반도의 숨겨진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보물처럼 되살아나는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름도둑, 이번엔 조선시대로 갔다!
박수무당으로 둔갑해, 배뱅이굿
한 판을 흘러당 흠쳐버리는데...



이 리플릿에 '배뱅이굿AR'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세요.

1. 플레이스토어에서 '배뱅이굿AR'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주세요.
2. 어플 내 카메라로 리플릿 속 캐릭터들을 비추면 AR체험과 함께 배뱅이굿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본 어플은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배뱅이굿 — 설화탐정

출연 소리, 김유리 장구, 이경섭 해금, 이동훈 피리, 최광일 대금, 박종현 아쟁, 김승철	서울남산국악당 총감독 윤성진 상임예술위원 한덕택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남산국악당
AR동화/설화탐정 (주)주령주령스튜디오	공연사업부장 김희재	
포스터디자인 파이가	담당프로듀서 유지은	
동화녹음 루프트	공연기획팀 정민규 추도영 박예은 이아랑 유예진 이소영 유지은	
영상 정근호		
음향 사운드컴퍼니		



I · SEOUL · U

